

美 화석연료 산업 규제완화 전망 정유업계, 업황회복 기대감 고조

트럼프, 화석연료 활성화 강조
수요 증가에 정제마진 개선 가능성
업계, 유가 하락 등 불확실성 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 집권 확정으로 국내 정유업계의 수익 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의 회귀를 강조해 온 만큼, 미국 내 수요 증가에 따른 업황이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는 불확실성을 고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이 3분기 나란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영업기준 영업손실 423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특히 석유사업 부문에서 6166억원의 적자를 냈다. 에쓰오일은 영업손실 4149억원으로 적자전환했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또한 각각 2681억원, 352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는 국제유가 하락과 정제마진 감소가 지목된다. 특히 국제유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감으로 3분기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유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행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2기 집권으로 미국 내 석유 등 전통적 에너지와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전기차 전환 촉진 등 친환경 정책은 휘발유, 경유 등 운송용 수요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석유를 시추하자)” 슬로건을 외치며 석유를 비롯한 전통 화석연료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석탄, 석유, 셰일가스 등의 화석연료 개발 및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다.

이에 석유 산업 지원 정책 강화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유 생산량 확대로 인해 유가 하락이 단기적인 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요를 늘리고 정제마진을 높여 지속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중동산 원유 위주로 수입 중인 국내 정유사들이 가격이 낮아지면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려 실적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집권에 따른 유가 하락이 정유사들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큰 폭의 재고 관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정유업계는 4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이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책을 본격 가동하고 동절기 난방유 및 항공유 등의 수요 증가와 미국의 경제성장 지속이 세계적인 수요 확대를 이끌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와 정제마진 개선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유가 하락이 재고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년형 LG 올레드 에보’.

/LG전자

LG 올레드 TV, 美·英 등 ‘최고의 TV’ 찬사

글로벌 주요 매체서 최상위 평가

LG전자는 자사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영국, 미국 유력 매체들이 선정하는 ‘올해 최고 TV’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형 LG 올레드 에보(모델명 G4)는 최근 영국 매체 테스트가 진행한 ‘TV 대결’에서 ‘올해 최고의 TV’로 뽑혔다. 전문가가 평가단이 TV 화질을 블라인드 테스트한 결과 G4는 색 정확도, 고명암비(HDR) 성능, 업스케일링 성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 1위에 올랐다.

LG 올레드 에보(모델명 C4)는 영국 매체 왓하이파이 선정 ‘올해 최고의 40

~50형 TV’에도 이름을 올렸다. 매체는 “뛰어난 화질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능을 갖췄다”고 호평했다.

미국 매체 디지털 트렌드는 ‘올해 최고 OLED TV 6선’에 G4와 C4를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했고, 하우투기는 C4를 ‘올해 최고의 OLED TV’로 뽑았다. C4는 미국 매체 톱스가이드로부터 ‘올해 최고의 50형 TV’와 ‘올해 최고의 43형 TV’에도 각각 선정됐다.

정재철 LG전자 HE연구소장은 “더 강력해진 인공지능(AI) 프로세서와 업계를 선도하는 올레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시청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동국씨엠, ‘리-본 그린 컬러강판’ ECV 인증

컬러강판제품 친환경성 입증

동국제강그룹 동국씨엠이 컬러강판 제품의 친환경성을 인정받았다.

동국씨엠은 삼화페인트와 공동으로 미국 안전규격 인증기관 UL 솔루션으로부터 ‘리-본 그린 컬러강판’(Recycling Born Green Pre-Coated Metal)에 대한 환경성 주장 검증(ECV, 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ECV 인증은 ▲재활용·재사용 소재 사용율 ▲유해 물질 함유율 등 제품 친환경성 주장에 대해 제 3자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해 부여하는 인증 마크다. 재생 소재 함유율에

대한 공정 심사 및 전문 엔지니어 검증 등을 거치는 까다로운 인증으로 분류된다.

동국씨엠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컬러강판 제품 친환경성이 검증됨에 따라 보호 무역 확산 등 철강 통상 환경 변화 속 수출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씨엠 남돈우 연구소장은 “탄소 배출 저감형 제품 수요 선제 대응을 위해 전기로 소재를 사용하거나 생분해 필름을 쓰는 등 친환경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며 “DK컬러 비전 2030에 따라 컬러강판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정부, 이차전지 소재 산업 활성화 나선다

강인선 차관, 포스코퓨처엠공장 방문
“정부가 가동률 회복 적극 지원할 것”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포스코퓨처엠 세종 음극재 공장을 찾아 “정부가 가동률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강 차관은 지난 18일 포스코퓨처엠 공장을 방문했다. 대선을 마친 미국 정부의 향후 배터리 산업 공급망 관련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재 공급망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강 차관은 “천연흑연 및 음극재는 주요 핵심광물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품목”이라며 “가동률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포스코퓨처엠과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지난 18일 포스코퓨처엠 세종 음극재 공장을 찾았다. 강인선 차관(사선 왼쪽)이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로부터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재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같은 우리기업이 가동률 회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국내 유일의 흑연계 음극재 생산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은 생산량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유일한 세계 10위권에 있으나, 최근에는 저가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밀려 가동률이 급락해 10위권도 위태롭다.

이에 따라 국내 음극재 국산화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는 포스코퓨처엠 음극재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 필수적이며,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음극재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외교부는 향후 MSP 활동 등을 통해 음극재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글로벌 협력방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차현정 기자

SK이터닉스, 1945억 규모 태양광 발전전력 공급

국내 대기업계열사와 직접PPA

SK이터닉스(SK Eternix)가 친환경 에너지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SK이터닉스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RE100 이행 기업 중 한 곳과 4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이하 직접PPA)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이터닉스는 2055년까지 30년 간 RE100 이행 기업에 40MW, 총 1945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직접PPA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RE100 가입 기업으로서는 재생에너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뿐 아니라, 공급받은 전력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당사는 국내 전력중개 시장의 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을 꾸준히 확보해왔으며, 이번 직접PPA 체결은 전력중개 사업의 교두보로써 큰 의미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및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 공식 온라인몰 ‘현대샵’ 리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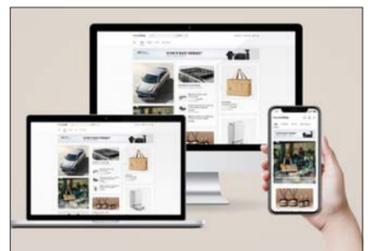
UX·UI 등 디자인 개선... 편의성 강화

현대자동차가 공식 온라인 쇼핑몰 ‘현대샵’을 새롭게 선보였다.

19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현대샵은 ▲자동차 액세서리 ▲세차용품 ▲차박(차에서 하는 숙박)을 위한 캠핑용품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이다.

현대차는 이번 리뉴얼에서 고객이 손쉽게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추가해 애프터마켓에 대한 고객 경험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사용자 경험(UX)과 사용자 환경(UI) 등 홈페이지 디



현대차 공식 온라인 쇼핑몰 ‘현대샵’

자인을 개선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콘텐츠와 맞춤 상품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대차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해 고객의 편리한 쇼핑을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